

# 역대급 불장에 몰리는 투자자들…증권사 ‘문전성시’

자녀 신규계좌 개설·휴면계좌 복구 등 거래 문의 급증  
객장마다 대기줄…부동산 대기자금 등 머니무브 폭발

지난 23일 오후 1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증권사. 최근 부쩍 늘어난 방문객들로 인해 증권사 내부는 대기실에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산했다.

이날 오전 해당 증권사를 찾은 고객은 60여명. 점심시간이 지나도 방문객이 줄지 않아 대기인원만 15명이 넘어갔다.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은 점심 식사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다.

코스피가 역대급 불장을 이어가면서 증권기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증권사를 찾는 이를 대부분은 자녀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아 휴면계좌로 등록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내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노년층은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거래방법을 배우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 실제로 한쪽에서는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상대로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도 눈에 띤다.

같은 날 광주 동구 금남로의 다른 증권사 역시 미관가지로, 대기 좌석이 부족해 고객 상당수가 객장을 서성이고 있었다.

노월규씨(40)는 “4년 전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S&P500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최근 코스피 장이 좋아 2달 전 육박하며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를

태어난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미리 증권계좌를 만들려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모씨(63)도 “요즘은 유튜브나 SNS 등을 이용해 투자 정보들을 손쉽게 알 수 있고 일반인도 쉽게 배울 수 있어 좋다”며 “이번에 자녀가 성인이 돼 투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증권사를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증권

시장에는 ‘머니  
무브’가 폭발  
하고 있다.  
갈 곳  
은 부동산  
대기자금이  
몰려드는 등  
은행 예·적금  
에 머물던 자금이  
증권사로 대거 이동  
하면서 코스피 상승에 따른  
변동이 확인되느라질 정도라는 게 증권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은행 요구불 예금은 새해 들어 보름만에 50조원 넘게 빠져 나간 반면, 증시 대기자금인 예탁금은 반년 만에 30조원 늘면서 96조원을 넘겼다. 활동 계좌수도 1억개에

나온다. 같은 날 광주 동구 금남로의 다른 증권사 역시 미관가지로, 대기 좌석이 부족해 고객 상당수가 객장을 서성이고 있었다.

노월규씨(40)는 “4년 전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S&P500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최근 코스피 장이 좋아 2달 전 육박하며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를



광주 동구 금남로 증권사에 개설 및 휴면계좌 해제를 위해 고객들이 몰려있다.

기록했다.

실제 A 증권사의 주식 매매가 가능한 리테일 계좌의 수는 지난해 195만639개로 2024년 124만5851개에서 약 70만개가 넘게 증가했다.

이는 2023년 100만3721개에서 24만여 계좌가 늘어난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지난해 주식 계좌를 개설한

수는 30대가 45만2491개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2만1467개로 뒤를 이어 젊은 층에서 투자의 열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40대(38만3186개), 50대(35만 5025개), 60대(15만2774개), 10대(14만9074개), 70대 이상(3만6622개) 순이었다.

주식 매매에 소극적인 70대 이상은 수는

적지만 지난해 3만6622개로 전년 1만

7798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신규계좌 개설의 경우는 기존 고객들이 자녀의 계좌를 개설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적립 매수 방법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많다”며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에도 은행이나 보험업종에서 ETF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전해 오는 고객들이 많

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상 첫 장중 5000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23일 장 초반 5000선을 회복한 뒤 오름폭을 줄여 4990대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7.54p(0.76%) 오른 4990.07에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글·사진=임재용 기자 djawody@0316@

## 전남신보, ‘종합플랫폼 대도약 원년’ 선언

‘12345’ 실천 소기업·소상공인 지속가능 성장 지원  
1인 자영업 고용보험료·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금융서비스  
이용의 문턱  
을 낮추기 위  
한 현장 중심  
서비스인 금  
융버스 ‘가드  
립’ 지원도 한  
층 강화한다.  
금융버스 ‘가  
드립’은 보증 상담과 대출, 경영지도채  
무조정·금융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하는 종합서비스로 2025년 행안부 공공  
기관의 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대외  
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남신보는 지난해 전용버스를 구입  
하고 전담센터를 구성해 연 50회 이상  
현장 지원을 실시했다.

올해는 현장 중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매주 1~2회, 연 70회 이상 도내 곳곳을  
찾아갈 예정이다.

특히 보증취약지역인 곡성과 영암에  
는 월 2회 정기운영을 시행함으로써 금  
융소외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전남신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비금융 지원을 체계화한다. 소기업·소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 이강근·사진)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 성장을 통한 전남경제 활성화와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12345’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플랫폼으로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25일 밝혔다.

12345는 총보증공급 1조원, 은행적 채권회수 200억원, 전국적 서고를 3%, 출연금 확보 400억원, 이용고객 확대 5만개에 업체를 의미하고 있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보증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보증저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전남신보